

【2019 ‘평화의 책’】

서평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미래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돌베개, 2019)

문아영 (피스모모)

열며

3월 3일에 있을 고종의 장례 및 그 습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해 있던 사람들은 이 ‘소동’을 보며 처음에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상복 복제가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백립을 쓰고 인산구경차 상경한 촌로들, 그들 중 하나가 채만식에게 물었다. “여보 학생, 이 웬일이요?” 채만식의 대답은 간결했다. “조선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70세도 넘어보는 노인은 잔뜩 겁먹은 얼굴이었는데, 채만식의 말을 듣고는 “당장 표정이 환희”로 바뀌었다. 감정에 복받친 듯 “어? 허어! 그럼..... 그럼” 하며 더듬거리더니 이내 지팡이를 높이 쳐들곤 “나두 만세! 만세!”하고 부르짖었다. (27쪽)

책을 펼쳐 읽다가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친 게 아니라 독립이 된 줄로 알고 기쁨에서 차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시나리오였다. 나에게 3·1운동은 국정교육과정을 통해 만나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 중 하나였고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결기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상정하고

는 했다. 혹시 내가 그 당시 태어났다면 나 역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묻다가 잔혹한 고문의 기록을 만날 때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으리라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데려오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은 내가 기존에 기억하는 얼굴들과는 많이 달랐다.

이 노인 외에도 3·1운동 당시 많은 이들이 “조선의 독립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만세를 외쳤다고 했다. 만세가 울려 퍼졌던 곳곳은 3·1운동은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과 독립을 선언하던 이들의 만세소리만이 아니라 독립이 이미 온 줄로 알고 환희에 차서 외쳤던 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던 것이었다.

조야하면서 장엄한 얼굴들

대한독립만세의 행렬을 채운 수천, 수만의 얼굴들이 교과서에서 보여 주던 얼굴들만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어쩌서 이제야 알아차린걸까. 사람들은 만세의 뜻도 모르고 만세를 불렀거나(128쪽), 만세를 부르며 지나가는 행렬에 왜 만세를 부르는가 물었더니 ‘웃음’만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왜 만세를 하는지도 모른 채 만세를 불렀거나(129쪽), 만세를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몰라 보통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만세 부르는 법을 배우거나(130쪽), 다른 지역이 다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 지역만 안 부를 수는 없다는 경쟁심리(137쪽) 또는 독립이 되면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133쪽)에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으며,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집을 불에 태운다는 협박(335쪽)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만세를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려는 군중을 설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을 가하려는 경찰을 설득한 유봉진(56쪽)이었으며, 스스로를 국민의 대표자로 자임하며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양봉식(59쪽)이었거나, “나는 충알이 맞지 않으니 마음대로 씹보라”며

저고리를 풀어헤친 오광옥(120쪽)이기도 했다. 저자는 이러한 3·1운동의 얼굴들을 이렇게 불렀다. “조야하면서 장엄하고, 난폭하면서 고귀하고, 무지하면서 드높은, 이들은 누구인가?(7쪽)”

공명하는 세계, 세계-내-존재들

저자의 말처럼 이토록 가늠하기 어려웠던 3·1운동의 사람들은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보폭으로 자신의 일상과 세계의 흐름을 넘나들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중이던 김항복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민회장 한용환에게 편지를 띄워 체코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독립을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 기회가 어찌하여 체코·폴란드만의 기회이겠습니까(220쪽)”.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인용하며 “자결(self-determination)”에 대한 뜨거움으로 분연히 조직되었던 대표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파리평화회의로 출발했다.

프랑스 파리, 대체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갔을까. 이동이 어려웠던 시기,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서로를 알아차렸을까. 넘쳐나는 소통의 기회들 속에 오히려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 지금에서 3·1운동 당시의 사람들의 소통을 상상하는 것은 그들이 소통의 매개로 삼았던 언어가 활자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시대정신(Zeitgeist)의 흐름 속에서 서로 공명했다고 밖에는 다른 이해의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또는 함께 대표가 되었다. 이들은 ‘대표성’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려는 사람은 벼단이든, 작은 계단이든, 정자든, 조금 높은 곳에 올라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세를 선창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밤의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고 산 속에서는

봉화를 피웠으며, 이화학당의 학생들은 학생시위를 위해 빨간 앵당목(櫻唐木)으로 손수건 수천 개를 제작해 배포하고 회사 등사기를 통해 격문을 인쇄하는 모든 과정이 각자의 만세소리였던 것이다.

언어와 몸, 그리고 수행성

저자는 이렇게 만세를 외쳤던 이들의 목소리를 “오지 않은, 그러나 와야 할 미래를 당겨쓰는 언어적 양식(33쪽)”이라고 이름 붙이며 이를 “수행적(perlocutionary)”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수행적’이라는 단어가 ‘performative’가 아니라 ‘perlocutionary’로 표현된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젠더연구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트리플〉¹⁾을 통해 ‘수행성(performativ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존재의 “구성을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젠더 수행성을 “젠더가 곧 드러나게 될 어떤 내적 본질로 작동하고 있다는 기대, 젠더가 기대하는 바로 그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 때의 수행성(performativity)은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를 통해 젠더화된 몸의 양식화와 연관되어 있다.

저자가 주목한 “perlocutionary”라는 단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는 ‘발화를 통해서 매개된다’는 의미로,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3·1운동이 수행적이었다는 점에 매우 동의하면서도 저자가 굳이 언어를 중심으로 매개되는 수행에 대해 주목한 이유가 궁금했다. 왜냐하면 3·1운동의 기억은 팔 잘린 소녀(416쪽)라는 상징을 담은 이광수의 시를 통해서 매개되지만 동시에 그

1)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트리플』 (과주: 문학동네, 2008).

러한 ‘시’는 결국 팔이 잘린 ‘몸’을 경과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지 않은가.

식민지와 전쟁은 수많은 죽음위에 배태되었다. 저자는 다양한 사진기록들도 글과 함께 담았는데, 훼손된 신체의 이미지는 단 한 장의 사진(506쪽)이 담겨있다. 3·1운동 당시 살해당한 희생자의 몸. 언어적 수행이 ‘몸’이라는 형태(form)를 경과할 때 만들어지는 수행성(performativity), 그 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몸의 의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2013년 9월 임진강 지류 탄포천에 설치된 철책을 넘어 강으로 뛰어든 한 남성. 그는 초소를 지키던 병사들로부터 수백발의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정치적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추방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왜 북한으로 가고자 했는지 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 그의 부고가 전해진 후, 군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과 살인행위이며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함께 있었다. 당시 총격을 가했던 초소의 초병들은 그 사건 이후 포상을 받았다.

저자는 국경과 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국민’의 완성과정인 ‘난민’의 형성과정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탄포천을 가로질러 북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는 국민이었는가, 난민이었는가.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염원했던 그들과 전쟁과 분단이 끝나기를 염원하는 지금, 여기의 ‘나들’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부표와 함께 떠올라야 했던 지금 한반도의 현실에서 “수백발의 총격을 받은 몸”과 “팔 잘린 소녀”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한국 사회의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분단을 수행적인 것으로 보려고 할 때, 분단을 수행하는 언어가 탈분단(post-division)을 수행하는 언어로, 분단을 수행하는 몸이 탈분단을 수행

하는 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우리가 당겨쓰고자 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답으며

“오지 않은, 그러나 와야 할 미래를 당겨쓰는 언어적 양식으로서의 선언의 역사(33쪽)”

저자는 18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립선언-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이 표현에 전율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나 마땅히 와야 하는 미래를 “당겨쓰는 언어적 양식”이라니! 평화는 마땅히 와야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다. 그 미래를 당겨쓰는 것은 언어이어야 함(perlocutionary)과 동시에 몸(performative)이어야 한다. 우리가 당겨쓰고자 하는 미래에 가까운 몸은 아마도 도미야마 이치로가 ‘폭력의 예감’²⁾에서 말했던 겁쟁이의 신체에 가깝지 않을까? 겁쟁이의 신체, 도래할 폭력을 예감하고 그 폭력으로부터 달아나는 몸, 살해되는 몸과 살해하는 몸 사이에서 그 살해의 행위를 거부하고 그 행렬에서 이탈하는 신체-들.

3월 1일의 밤은 3·1운동에 대한 저자의 사랑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늠하여진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길을 잃고, 슬하게 어긋나고 충돌하는 기억 속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길어낸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마주하며 나는 끝끝내 3·1운동을 사랑하는 저자의 글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이 글을 달고자 한다.

2) 도미야마 이치로 저, 손지연 외 역, 『폭력의 예감』 (서울: 그린비, 2009).

문아영(Moon, A-Young)

교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짧게 근무하다가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를 만나 깊이 알아가던 중, 2012년 9월 피스모모(PEACEMOMO)를 동료들과 함께 창립하여 현재 피스모모의 대표로 재직중이다.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핵심 가치로 하는 비영리스타트업으로 평화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결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영역에서 교사 및 교육활동가들과 함께 군비축소의 문제를 고민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 토론하며, 분단으로부터 벗어나는 탈분단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서로 배움'의 경험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